■ 한국광고주협회 정기총회

◀ 한국광고주협회
99년 정기총회 전경모습

한국광고주협회는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 난초홀에서 민병준 회장을 비롯하여 이서형 금호건설 사장, 이병만 경농 부회장, 김이환 아남반도체 부사장, 박현기 동서식품 전무이사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8년도 사업보고, 98년도 결산안 심의, 98년도 감사보고, 99년도 사업계획대강안 심의, 99년도 예산안 심의,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임원 개선의 건, 기타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민병준 회장은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적절한 광고전략을 구사하는데 힘든 한해였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광고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광고주들의 의지가 돋보인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IMF로 침체된 광고계 분위기를 일신하고 명실상부한 광고주의 응집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제2도약의 해로 협회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병준 회장은 "세계광고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광고와 마케팅사업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활발히 벌여나가며, 아울러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민회장은 협회가 창립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다가올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99년에는 회원들을 위한 각종 대내외 활동과 회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준 회장이 광고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전임 홍오선 상근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

이날 모인 회원들은 협회의 99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 조성 ▲효율적인 경제 홍보 사업 전개 ▲국제 협력 사업 강화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례사업과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 그리고 특별사업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창립 11주년을 맞는 올해를 제2도약의 해로 만들어가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한 99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첫째, 광고·마케팅사업 강화를 위해 신문매체 분야, 방송매체 분야, 규제·제도분야, 대행사 분야, 마케팅 분야의 조사연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또한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최신 정보 교환을 위한 교육세미나사업을 위해 광고·마케팅대학 운영 등의 구체적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둘째, 경제홍보사업 강화를 위해 전경련과 공동으로 재계 공동 경제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유대강화에 주력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기업 및 광고 이해 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장 및 시민단체장 초청의 정례모임을 관례화하고,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셋째, 세계광고주연맹 제46차 세계광고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세계광고주연맹 및 각국 광고주협회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한·중·일 아시아협의회를 운영 아시아 각국의 유대강화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판, 정보 서비스 제공, 기획 및 정책사업을 전개, 광고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광고주의 권리찾기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99년 사업계획 및 12억 2,700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과 관련, 홍오선 상근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으며, 전상열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를 신임 전무이사에 선임하였다. 또한 감사에는

직무 연속성을 감안, 이서형 금호건설 사장은 연임되었으며, 이병만 경농 부회장이 신임 감사로 선임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989년 4월부터 협회 상근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광고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홍오선 전임 상근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사무국에서 제46차 세계광고주대회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사말/전상열 신임 전무이사 : "회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광고주협회의 전무이사라는 중차지대한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주협회가 창립된 것이 11년 전이지만 제가 전경련에 근무하면서 산파역의 일원으로서 실무자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주협회의 전무이사로서 다시 오게되니 남달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고업계에 조금은 생소한 제가 와서 당면한 광고업계의 현안들을 잘 추스릴 수 있을지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제일 주요한 것이고, 구성원이 바로 회원이며, 회원이 일차적인 고객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을 회원들의 이익과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부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회원을 위한 사업, 회원들한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사무국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고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은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원 여러분의 올바른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